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정*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7. 7. 22(토)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내가 간 곳은 필리핀 말라본에 위치한 라살아라네타 대학교이다. 본 대학교는 아니고 약간 부속느낌의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세 개가 있는 꽤 큰 규모의 교육 시설이었다. 초록을 특히 강조하여 인테리어 하였으므로 꽤 자연 친화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 필리핀 현지 학생들이 한국말로 친근하게 인사해주기도 하여 꽤나 편안한 분위기이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하버드, 예일, RM, 캠브릿지 이렇게 4개의 장소에서 수업을 받았다. 하루에 11시간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3시간은 쉬는 시간 8시간이 수업시간이다. 각 수업시간마다 장소가 달라 직접 이동해야 한다. 수업내용은 Writing, Listening, Speaking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기대했던 일대일 수업은 예상대로 괜찮았다. 일대일 수업은 세 시간 동안 각각 다른 선생님에게 한 시간씩 받는데 한 시간 동안 영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데 이번 단기어학연수기간 동안 내 영어실력이 늘은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 같았다. 특히 전혀 기대도 안했던 Writing실력이 에세이 작성을 통하여 크게 는 것 같았다.</p> <p>소그룹 시간은 두 시간을 가졌다. 소그룹 선생님들은 완벽하게 Speaking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았고 우리에게 영어를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셨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유쾌하셔서 한 시간 수업이 꽤나 재미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다. 소그룹 시간에는 내 의견을 조직화하여 영어로 스피킹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p> <p>대그룹시간은 세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리스닝, 토익스피킹, 멀티미디어</p>

	<p>시간이 있었다. 대그룹시간에는 사람이 많다보니 집중력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게임 활동을 하였다. 모두 재밌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에 집중하기에는 충분했다. 리스닝은 확실히 팟송,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귀를 트이게 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토익 스피킹 시간에는 마치 한국학원 처럼 약간 공식처럼 수업을 알려주었다. 멀티미디어시간은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접 광고를 만들어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p> <p>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 과제가 좀 많았다. 일주일에 에세이를 두 번 써야 하고, 피피티를 이용한 발표 준비,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기, 단어공부 등 여러 가지를 4주안에 했다. 캐나다보다 빠센 수업일정에 지원했는데 수업보단 이러한 과제가 더 빠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괜찮았다. 소그룹이나 대그룹선생님들은 미국식 발음을 유창하게 하셨는데 몇몇의 일대일 선생님들은 필리핀 발음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가끔 알아듣기 힘들었다.</p> <p>하지만 4주 커리큘럼이라 별로 기대 안했는데 생각보다 내 영어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았다. 혹시 필리핀 어학연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정도 빠센 일정은 감수해야 할 것 같지만 실력은 조금이라도 향상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수업'부분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게임 활동을 정말 많이 했다. 생각지도 못한 게임 활동이 많았고, 그 활동들을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또한 돋보였다. 또 소그룹 시간에 LOF라는 Language of Foot이라는 활동을 하였는데 필리핀 현지 학생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이었다. 생각보다 필리핀 학생들은 우리에게 많이 호의적이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마닐라 투어라고 대그룹 사람들끼리 두 번째 주 금요일에 마닐라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활동 또한 했다. 하지만 대낮에 가서 많이 더운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그룹 사람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 딱히 추가비용은 없었던 것 같고, 준비물도 딱히 준비할 건 없었다. 노트북을 딱히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오히려 한국보다 날씨가 괜찮았던 것 같다. 덥기는 덥지만 습하지는 않아서 매우 끈적이지는 않았다. 가끔 비가 예상치 못하게 내리기는 하였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란 숙소가 굉장히 가까워서 딱히 우산을 들고다닐 필요는 없었다. 초반에 태풍 때문에 학교가 한번 휴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외출 자체가 금지되곤 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날씨가 괜찮다. 내가 갔을 때는 우기라 오히려 건기보다 시원했었던 것 같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우리 숙소 근처가 안전한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숙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골목길도 많고, 돈을 구걸하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또한 소매치기에 항상 조심해야 했었고 거지들이 많았다. 소매치기를 조심하기 위해 힙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았다. 내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 현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일단 IS 때문에 필리핀 한 섬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였고,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때 '꿈을 지나쳐서 가겠다'라고 발언하여 국제적으로도 불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있는 4주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교통이 너무 무질서하여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위험하였다. 필리핀에서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한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냉장고도 있고 세면대와 옷장이 잘 갖춰져 있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도 있었다. 하지만 바퀴벌레의 출현이 너무 잦아서 항상 걱정해야 했었다. 하지만 방역을 거의 맨날 해주니 그나마 바퀴벌레가 줄어든 거라고 생각했다. 청소 자주 해주고, 2주에 한번 침실용품을 교체해준다. 숙소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그런데 현관문 바로 앞에 담배 피는 곳이 있어서 비흡연자는 약간 출입할 때 힘들다. 빨래는 여자는 월, 수, 금, 일에 하고 남자는 화, 목, 토에 해서 빨래 걱정은 크게 없다. 1kg에 25페소이고 50페소에 신발 빨래도 가능하다. 9시부터 빨래 시작인데 빨래 해주시는 아주머니께선 항상 20분씩 늦으신다.</p>

식사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은 한식으로 나오는데 이모님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집밥을 먹는 것 같았다. 메인요리와 국 빼고는 뷔페식이었고, 2주 간격으로 메뉴가 바뀌는 것 같았다. 외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꼭 'less salty'를 말해야 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먹기 때문이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는 걸어 다녔다. 화, 수, 목에 하이퍼마켓을 가는 무료밴이 운영되었다. 토요일에는 sm north를 가는 무료밴이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 이외에 다른 곳을 다니고 싶을 때는 Grab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개념이다. 차이점이 있단 내야 되는 돈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도로는 365일 명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내심을 준비해야 하고 만약에 어느 식당을 예약하였으면 적어도 20분은 여유를 가지고 택시를 타야한다. 교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린 택시를 아주 잘 이용하였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기숙사보증금, 여행자보험	688,71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240,000	달러를 페소로 환전
기념품	102,350	기념품 삼
옷	144,630	백화점에서 쇼핑
합계	1,175,69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소화기관에 탈이 많이 발생하니 비상약을 챙겨주시고, 슬리퍼 같은 것을 챙기는 것이 편해요. 비자 가능한 신용카드가 있으면 편하고 여기 주변에 맛집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옷은 이쁜 옷들도 많이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샴푸나 린스같은 목욕용품들은 여기서도 충분히 살수있으니 굳이 준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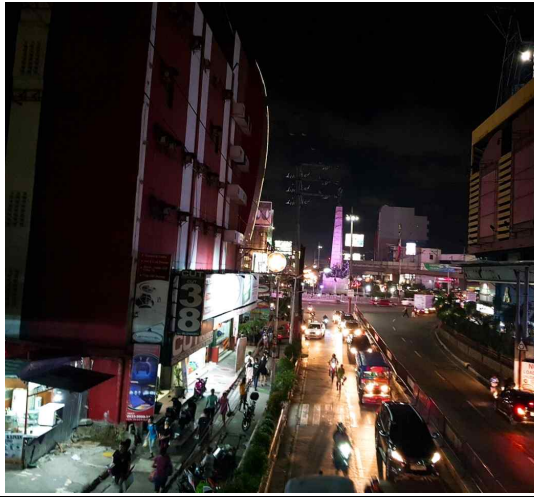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4주간의 커리큘럼이라 솔직히 영어실력 향상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영어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조금 트이게 되었어요. 비록 단어나 문법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내뱉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영어를 듣게 되어 영어실력 또한 향상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필리핀 발음이 향상되기도 하니 항상 미국식 발음으로 신경을 쓰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필리핀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기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고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이 자꾸 돈 달라고 달라붙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닐 때마다 안녕 하세요 하면서 인사해주는 그들의 따뜻한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4주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쉽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sm north안에 있는 바이킹에서 해주는 생일파티</p>	<p>풍차우 술집 안에서</p>
	
<p>맨투맨 선생님과 사진</p>	<p>민도르섬에서 한 혜나</p>



sm 하이퍼마켓 앞 도로사진



졸업식 후 학교 앞에서